

## 관광경제에 대한 일반적리해

박 정 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학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연구완성하는 문제, 나라의 지식자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리용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대담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관광경제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는것은 나라의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그것은 관광경제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져야 인민경제에서 관광경제의 위치를 옳게 밝히고 그 역할을 높여 나가게 할수 있을뿐아니라 관광발전의 세계적추세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관광발전전략을 세워 나라의 관광경제를 목적지향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기때문이다.

관광경제는 관광 및 관광업의 확대발전의 필연적산물로 출현하였다. 그러나 관광경제는 관광이나 관광업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것은 아니다.

관광경제는 관광업과 매우 밀접히 련관된것으로 하여 좁은 의미에서는 관광경제를 관광업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광경제는 관광업에 비하여 폭넓은 의미를 가진다. 넓은 의미에서의 관광경제는 관광업과 함께 그와 밀접히 련관된 기타 경제부문들을 포괄한다. 흔히 관광경제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관광경제를 넘두에 둔다.

관광경제는 상업경제, 공업경제와 마찬가지로 관광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경제활동분야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관광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진행하는 문화정서생활로서 그 본질적특징은 첫째로, 그것이 일상거주지밖의 다른 장소에서 휴식을 목적으로 려행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하는 활동이라는것이며 둘째로, 그것이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적인 려행이나 활동이라는것이다.

관광경제는 관광이 대중적성격을 가지고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 그것이 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커짐에 따라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령역, 경제부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관광경제는 관광객의 관광수요와 그 충족을 둘러싸고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경제관계, 관광업과 그와 밀접히 련관된 경제부문들사이의 경제관계,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과 관련된 수단과 수법의 총체를 포괄한다.

관광경제는 무엇보다먼저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충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의 총체이다.

관광수요는 관광경제발전의 전제이며 관광공급은 관광경제발전의 결정적요소이다. 수요와 공급의 적응의 법칙은 관광경제령역에서 작용하는 주요경제법칙이다. 관광수요는 관광공급을 어떻게 따라세우는가에 따라 그 충족정도가 좌우되며 관광공급의 수준에 의하여 관광경제의 발전이 결정된다.

관광공급은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각종 관광자원, 관광시설과 관광봉사 및 순조로운

관광활동을 담보하는 모든 조건을 포괄한다. 여기서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관광봉사는 관광공급의 기본요소이다.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충족정도는 우선 관광하부구조의 질과 능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광하부구조는 관광공급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관광하부구조에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 전력공급망과 상하수도망, 비행장, 도로, 항만 같은것이 속한다. 관광하부구조의 질적상태와 처리능력은 관광객들의 소비심리와 활동, 구매량과 소비지출의 크기를 결정하는것과 관련하여 관광공급의 질과 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충족정도는 또한 관광기업체들의 관광봉사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광기업체는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관광공급자이다. 관광기업체에는 여행사, 호텔, 식당, 관광지관리운영기관 등이 속한다. 관광기업체들의 관광공급활동에 의하여 탐승, 유람, 견학과 같은 정신문화적요구와 건강, 휴식 등과 같은 생리적인 요구를 비롯하여 관광객들의 다양한 관광수요가 충족되게 된다. 이 과정에 관광수요자로서의 관광객과 관광공급자로서의 관광기업체사이에 여러가지 경제적관계가 맺어진다.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충족정도는 또한 관광기업체들사이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광객들의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관광공급을 어떻게 적응시키는가 하는데서 관광기업체들사이의 호상관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관광목적지국가에는 각이한 업종의 관광기업체들이 있고 같은 업종이라고 하여도 각이한 소속의 기업체들이 있으며 그들은 관광공급의 각이한 환절들을 담당하고있다. 그러므로 각이한 관광기업체들사이의 관계를 옹계 설정하여야 다양한 관광수요에 관광공급을 따라세울수 있다.

관광목적지국가의 관광기업체들사이의 호상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그 하나는 관광려객사업소, 호텔, 관광지관리운영기관과 같이 관광공급의 각이한 련쇄된 환절을 담당하는 기업체들사이의 호상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호텔과 려관, 철도려객사업소와 배스려객사업소와 같이 관광공급의 어느 한 환절만을 담당하는 기업체들사이의 호상관계이다. 관광공급의 각이한 환절을 담당한 관광기업체들사이의 가격과 질 등 여러 측면에서의 경쟁에 의하여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의 질적충족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관광경제는 관광객들의 관광수요의 충족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경제관계의 총체이다.

관광경제는 다음으로 관광업과 그와 밀접히 련관된 경제부문의 총체이다.

관광경제는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분야로서 관광객들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각이한 경제부문들로 구성된다. 이것은 관광수요의 다양성과 련된다.

관광수요는 휴식관광, 학습관광, 료양관광, 체육관광, 상업관광, 사냥관광, 민속풍습관광, 모험관광 등 관광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관광활동자체가 일상적인 생활과정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되기때문에 려객봉사, 호텔봉사, 식당봉사, 기념품판매봉사, 금융봉사, 오락봉사, 문화후생 및 생활상편의봉사 등 각이한 생활적봉사수요도 제기된다.

실례로 관광호텔의 건설과 정상운영을 보장하자면 건설, 기계제작, 립업, 목재가공, 전자공업, 방직, 금속공업, 전력, 상하수도부문들사이의 련계가 필수적으로 맺어지며 식료품과 음료를 공급하자면 알곡, 축산, 과수, 수산부문들과 식료가공공장들과 항시적인 련계를 맺고있어야 한다. 뿐만아니라 관광객들의 영접안내, 생명안전, 치료, 대금결제에서 신속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편의를 도모하자면 교육, 보건, 보험, 금융부문들로부터 봉사

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종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러저러하게 이바지하는 부문이라고 하여 다 관광경제부문에 되는것은 아니다.

관광경제는 종합적성격을 가지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의 한 부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제부문을 구분하는데는 순수부문과 경영부문이 있다.

순수부문으로서의 경제부문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경영상소속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도 업종이 같다면 하나의 부문으로 본다. 이와 달리 비록 업종에서는 서로 다르다고 하여도 경영상소속이 같다면 하나의 부문으로 본다.

관광경제의 경제부문은 순수부문이 아니라 경영부문으로 규정되는 경제부문이다. 실례로 농업은 순수부문의 견지에서는 농업경제부문이지만 관광경영의 견지에서 볼 때에는 관광경제부문에 될수도 있다. 이러한 농업을 관광농업이라고 한다.

관광경제는 크게 기본경제부문과 보조경제부문으로 구성된다.

관광경제의 기본부문은 관광객을 접수하고 직접적인 관광활동을 봉사해주는 부문으로서 여기에는 교통운수업, 숙박업, 오락업, 여행사업과 여행기념품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관광경제의 기본부문은 관광공급에서의 직접적인 경제부문, 고유한 의미에서의 관광부문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관광활동은 이러한 부문만으로는 성과적으로 봉사할수 없으며 여러 련관된 부문들이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부문들을 관광경제의 보조부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관광봉사활동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면서 경영상 관광경제에 소속되는 상업, 금융업, 건설업과 체신업 등이 속한다.

경영부문으로서의 관광경제부문을 규정할 때 이러한 방법론이 관광경제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규정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관광농업을 실례로 들어볼 때 그 소득을 농업에 의한 소득과 관광에 의한 소득으로 구분하는데 비록 경영상 관광부문에 소속되어있다고 하여도 그 총소득 가운데서 관광에 의한 소득에 비하여 농업에 의한 소득이 더 크다면 그것은 관광이 아니라 농업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하는것이 정확하다.

그러므로 경영부문으로 관광경제부문을 규정할 때 비록 해당 전문부문이 관광경제에 이바지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득의 견지에서 관광에 의한 소득이 전문부문의 소득에 비하여 더 작고 관광봉사에 의하여 그 경영활동이 좌우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관광경제에 소속시키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관광객들의 관광소비와 큰 련관이 없는 부문들은 관광경제에서 배제할수 있다. 즉 관광객이나 관광공급자에게 다같이 의의는 있지만 일반소비자들의 수요도 무시할수 없고 관광수요가 없다고 하여도 존재 그자체에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문들은 관광경제의 부문이 아닌것으로 볼수도 있다.

이와 같이 관광경제는 경영상 각이한 경제부문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제부문의 하나이다.

관광경제는 다음으로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수단과 수법들의 총체이다.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수단과 수법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평가지표체계이다.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은 크게 경제적효과성, 사회적효과성, 생태적효과성의 세 측면에서 평가할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관광경제활동의 경제적효과성이다. 그것은 모든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관광경제활동도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며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결과를 이룩할것을 요구하기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관광경제활동의 경제적효과성이 높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회적효과성이나 생태적효과성을 떨어뜨리는 결과에 이룩되는것이라면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실례로 관광객들의 각이한 수요를 최대로 충족시켜야 관광경제활동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관광객들이 관광지구역의 생태환경을 마구 오염, 파괴시키거나 해당 나라와 지역의 사회정치문화생활에 부정적영향을 미치는 현상들과 행동을 내버려둔다면 그러한 경제적효과성은 인정될수 없다. 그러므로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평가지표체계는 사회적효과성과 생태적효과성을 담보하는 조건하에서 경제적효과성이 최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

관광경제활동의 경제적효과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평가할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관광경제부문자체의 경제적효과성과 경제장성에 대한 관광경제의 기여률지표, 경제구조에서 관광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지표, 나라의 무역구조에서 관광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지표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다.

이와 함께 관광경제활동의 경제적효과성은 관광자원자체의 지역적특성으로 하여 해당 관광지역경제장성에 대한 관광경제의 기여률이나 나라의 경제장성에 대한 해당 관광지역경제장성의 기여를, 관광지역주민들의 소득장성률 등의 지표를 통하여 평가할수 있다.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수단과 수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각이한 대책과 방법이다.

관광경제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목적지국가의 관광정책, 관광경제발전전략(국가적 및 지역적관광발전전략을 포함)과 관광기업체들의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계적추세와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부합되게 과학적으로 수립하는 문제, 해당 관광도시나 관광지대, 관광지 혹은 관광자원의 국제경쟁력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이한 나라와 지역, 각이한 직업, 나이의 관광객들을 계절의 제한성을 받지 않고 끌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전술적조치들을 정확히 취하는 문제, 관광객들의 다종다양한 관광수요에 대한 봉사의 효과성을 최대로 높이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구체적인 실천적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이 요구된다.

관광은 사람들의 활동이고 사회적현상의 하나이다. 더우기 국제관광은 각종 정치적, 경제적 및 문화적요소들의 영향을 받기때문에 관광목적지국가와 관광지역의 주민도 관광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관광경제에서는 관광소비과정에서 관광객과 관광목적지국가나 관광지역의 주민사이에 이루어지는 현상과 관계를 무시할수는 없다.

관광부문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관광경제와 관련한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옳바른 인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관광경제를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해나가야 할것이다.